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유아 개인 및 학급 맥락의 영향

Effects of Individual and Classroom Contexts on Peer Victimization of Preschool Children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 교수 신 유 립*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Shin, Yoo-L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classroom variables on peer victimization through the use of multi-level models. The participants were 297 preschool children recruited from preschools. Teachers completed rating scales that assessed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Peer nomination was used to measure social preference and friendshi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ggression level of classrooms as well as social preference and friendship were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The findings imply that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social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before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for peer victimization are implemented.

▲주요어(Key Words) : 또래 괴롭힘(peer victimization), 사회적 수용도(social preference), 공격성(aggression), 친사회성(prosocial behavior)

I. 서론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일부 유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또래들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하여 괴롭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이다.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를 보면 유아기 또래 괴롭힘 피해는 놀리기와 같은 일반적 피해, 때리기, 발로 차기와 같은 신체적 피해, 나쁜 말하기, 흉보기와 같은 언어적 괴롭

힘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Alsaker와 Valkanover(2001)의 연구에서 유아기 또래 괴롭힘 피해는 간접적 공격성,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기, 물건 빼앗기와 같은 소유물에 관련된 괴롭힘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 빈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Olweus(1991)의 연구를 보면 8세에서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 빈도를 조사해본 결과, 8세 때에 8% 이었으며 초등학교 시기에 점차 빈도가 감소하여 16세가 되면 5% 정도로 나타났다. Alsaker와 Valkanover(2001)의 연구에서는 5~7세 유아들의 경우 10%가 피해 유아들로 구분되었으며, 발달에 따라 피해 아동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5% 정도로 감소하였다(Olweus, 1991).

* 주저자 · 교신저자 : 신유립 (E-mail : yoolim@catholic.ac.kr)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초등 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소수의 외국연구를 제외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종단적 연구결과를 보면 유아기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이 이후 발달의 부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Hodges et al., 1999), 유아기에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래 괴롭힘 피해에 관련된 변인으로 우선 유아 개인 차원의 변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수용 및 친구관계가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수용은 유아가 속한 집단의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집단의 견해를 나타내는 집단 지향적인 개념이다. 반면에 친구 관계는 이원적인 차원으로 두 명의 유아들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의미한다(Hartup, 1996).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수용은 집단에서의 적응이나 부적응 정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친구관계는 자아 존중감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Hartup, 1996). Gest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 수는 놀리기 및 쫓내기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부적응으로, 또한 리더십과 유모 감각을 정적으로 예언해주었으며, 사회적 수용은 집단 따돌림, 공격성, 파괴적 행동과 정서적 문제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부적응으로 예언해주었다.

또래 괴롭힘 피해와 사회적 수용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의 정도가 낮은(Hodges et al., 1999) 것으로 보고되었다. 두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결과를 보면, Boivin과 Hymel(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 괴롭힘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erry 등(1988)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지명과 또래 괴롭힘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지명과 또래 괴롭힘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 되었다.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이점숙과 유안진(1998)의 연구에서 또래 거부 정도는 직접적 및 관계적 괴롭힘 피해 모두와 관련성이 나타났다. 양원경과 도현심(1999)에 의하면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또래보고, 교사보고 및 자기보고법의 모두에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점수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해 보았을 때 거부집단 아동이 인기나 무시된 집단보다 괴롭힘의 피해 정도가 더 높았다.

또래 괴롭힘 피해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피해 아동의 경우 특히 공격적인 피해 집단 (aggressive victim)의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친구 수가 적었으며, 종단적으로 친구의 수는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예언해주는 변인이었다(Hodges et al., 1999). 피해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친밀한 친구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밀한 친구가 있는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Hodges et al., 1999). 신재은(2000)에 의하면 남녀 아동 모두 친구의 수는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성이 있었으나, 남아만이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었다. 최미경과 도현심(2000)은 괴롭힘 피해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관계가 중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자 아동의 경우 또래 괴롭힘은 친구의 수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 능력에 대한 자아 지각에 영향을 주었다.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보면, 친구는 행동이나 정서적 조절 문제로 인하여 괴롭힘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가해 아동들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가해 아동들은 자신의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친구가 없는 아동은 괴롭힘 피해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Hodges et al., 1999). 또한 친구관계가 또래 괴롭힘 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술이 괴롭힘 피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서를 규제하는 능력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뿐만 아니라(Parker & Gottman, 1989), 잠재적인 괴롭힘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인 차원의 변인뿐만 아니라 학급 차원의 변인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 수 있는데, 또래 괴롭힘은 학급에서 발생하는 집단 현상이므로 학급의 공격성수준은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급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또래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며, 개별 아동의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듯이 학급별로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를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를 보면 Hanish 등(2005)의 연구에서 학급의 공격성 수준을 측정하고 유아 개인 수준의 또래 괴롭힘 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급 공격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주는 학급 수준의 변인으로 공격성과 함께 학급 차원의 친사회성을 들 수 있다. 학급의 친사회성 수준이 높은 교실에서는 긍정적인 정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급에 소속된 유아들은 서로 친사회적 행동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Schwartz et al., 1998). 또한 관찰학습이론에 근거해 볼 때, 학급에서 적응적이고 친사회적인 유아들이 많은 경우 유아들은 이러한 행동을 직접 관찰하며 배울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Battistich 등(1995)의 연구가 이를 입증해주는데 학급에서 유아들 사이의 친사회성 정도는 학교 차원에서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를 대상으로 이 시기의 또래 괴롭힘 피해는 유아

개인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의 역기능을 반영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유아 개인 및 학급 차원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으로 다중모형을 적용하여 유아 개인 차원 변인으로 사회적 수용과 친구관계를 설정하고, 학급 차원 변인으로 학급 수준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설정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는 학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적 수용과 친구 수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유아 개인 수준의 변인을 통제 한 후에도 학급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 수준은 유아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다섯 곳의 유아교육기관의 만 4~5세 유아 297명과 유아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 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 166명(55.9%), 여아 131명(44.1%)이었으며, 연령은 만 4세 81명(27.3%), 만 5세 216명(72.7%)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 학급의 수는 전체 18개 학급이며 각 학급 당 유아들의 수는 평균 17명이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 1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담임교사의 경우 14명(77.8%)은 유치원에, 4명(22.2%)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였으며, 교사의 연령은 20대가 12명(66.7%), 30대가 6명(33.3%)이었다. 교사의 경력은 6~10년이 10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가 7명(38.9%), 11년~16년이 1명(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력은 4년제 졸업이 13명(72.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연구 도구

1) 또래 괴롭힘 피해

Kochenderfer와 Ladd(1996) 및 Schwartz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는 교사 설문지의 문항을 사용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교사가 학급 유아들의 또래관계 피해 정도를 평정하는 4점

척도이며 신체적 피해(예: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때린다.), 언어적 피해(예: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놀린다.) 및 사회적 배척(예: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점으로 계산하여, 교사가 측정한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2) 학급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

유아의 공격성 및 위축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aFreniere와 Dumas(1996)의 교사 보고용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SCBE: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척도에서 하위 척도인 친사회성 10문항(예: 다른 유아와 협력한다.)과 공격성 10문항(예: 다른 유아를 때리거나 물거나 발로 찬다.)을 사용하였다. SCBE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친사회성 .86, 공격성 .83으로 나타났다. 학급 차원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은 학급 별로 전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성 평균 점수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수용 및 친구 수

유아의 사회적 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oie와 Dodge(1983)의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였다. 유아들에게 학급 전체 유아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나와 함께 잘 놀고 내가 좋아하는 유아 세 명' 및 '나와 잘 놀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유아 세 명'을 각각 지명하도록 하였다. 각 유아가 학급의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및 부정적 지명수를 합산하고 학급별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z점수를 계산한 후 긍정적 지명 z점수에서 부정적 지명 z점수를 뺀 점수로 사회적 수용도를 계산하였다. 수용도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학급의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는 긍정적 지명에서 상호 지명한 유아의 수를 계산하여 친구의 수로 계산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표집된 유아들은 학급 내에 속해 있는 위계적인 형태의 자료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HLM 6.0 프로그램(Raudenbush et al., 2004)을 사용하였다.

HLM은 유아 개인 수준과 학급 수준 변인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HLM의 첫 번째 단계는 종속변인 내에 유의미한 학급 간 변량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한다. 이 단계에서 학급 간 유의미한 변량이 있으면

다음 단계는 무선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통하여 유아 개인 수준 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다. 다음 단계는 준거로서 절편 모형(intercepts-as-outcome model)과 준거로서 기울기 모형(slope-as-outcome model)으로 종속변인인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직접 영향과 조절 영향을 검증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절편 모형만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표집된 유아들이 학급 내에 속해 있는 위계적 형태의 자료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회귀분석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HLM 방법을 적용하였다. HLM은 동일한 수준 내 변인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수준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다층모형 분석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범위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의 평균은 4점 척도에서 1.47로 중간 이하의 값을 보이며, 친구 수의 평균은 .84이며 연구 대상 유아들이 평균 1명 이하의 상호지명 친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급의 공격성 평균은 4점 척도에서 1.64로 낮은 공격성 정도를 보이며 친사회성 평균은 4점 척도에서 3.0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다층 모형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 무조건 모형

무조건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들의 또래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한 학급별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모형에서 다른 독립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무조건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의 전체 분산 중 학급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학급 간 분산과 학급 내 유아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내 비율을 알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수준 1 (유아 개인 수준 모형) $Y_{ij} = \beta_{0j} + \epsilon_{ij}$

수준 2 (학급 수준 모형) $\beta_{0j} = \gamma_{00} + u_{0j}$

Y_{ij} : j번째 학급 i번째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β_{0j} : j번째 학급 유아들의 평균 또래 괴롭힘 피해

ϵ_{ij} : j번째 학급에서 개인차에 의한 또래 괴롭힘 피해의 분산

γ_{00} : 또래 괴롭힘 피해의 학급 평균

u_{0j} : 학급 차에 의한 유아 또래 괴롭힘 피해의 분산

<표 2>에서 고정효과를 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의 학급 평균은 1.4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t=21.009, p<.001$), 무선효과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개인 수준 분산과 학급 수준의 분산을 검증한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가 학급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5.32, p<.001$). 유아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학급수준의 변량은 .075이고, 유아개인수준의 변량은 .137이었다. 또한 유아 또래 괴롭힘 피해에

<표 1>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범 위
유아변인 (N=297)			
또래 괴롭힘 피해	1.47	.45	1.00~3.00
사회적수용도(z점수)	-.00	1.47	-5.92~4.49
친구 수	.84	.89	0.00~3.00
학급변인(N=18)			
공격성	1.64	.28	1.10~1.99
친사회성	3.05	.20	2.78~3.48

<표 2> 무조건 모형 분석

고정효과	계 수	표준오차	t
학급평균	1.476	.070	21.009***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χ^2
학급수준	.274	.075	155.302***
유아수준	.371	.137	

***p<.001

<표 3> 유아 수준 변인을 추가한 조건 모형

계 수	추정치	표준오차	t
유아수준			
사회적 수용	-.106	.036	-2.932*
친구 수	.027	.034	.802

*p<.05

<표 4> 학급수준 변인을 추가한 조건 모형

계 수	추정치	표준오차	t
유아수준			
사회적 수용	-.107	.033	-3.237**
친구 수	.024	.032	.756
학급수준			
공격성	.710	.183	3.866**
친사회성	-.363	.261	-1.392

*p<.05

대한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즉 전체 분산에서 학급수준 분산 차지하는 비율은 .353 이었다. 이는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가 64.63% [= .137 / (.075 + .137)]는 유아 개인차에 의해 결정되고, 35.37% [= .075 / (.075 + .137)]는 학급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2) 연구문제 2: 조건 모형

무조건 모형에서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점수에 학급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건 모형 1에서 유아 개인 수준(1수준)에서는 사회적 수용과 친구 수를 설정하였고 이 변인들은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여 교정된 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투입하였다.

$$\text{유아수준 모형 (1수준)} : Y_{ij} = \beta_0 + \beta_{1j}(\text{사회적 수용}) + \beta_{2j}(\text{친구 수}) + \epsilon_{ij}$$

$$\begin{aligned} \text{학급수준 모형 (2수준)} : \beta_{0j} &= \gamma_{00} + u_{0j} \\ \beta_{1j} &= \gamma_{10} \\ \beta_{2j} &= \gamma_{20} \end{aligned}$$

조건 모형 1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의하면 유아 개인 변인 중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수용이었으며($\beta = -.106, p < .001$) 친구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모형 2에서는 학급 수준(2수준)의 변인으로 학급차원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설정하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은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여 교정된 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투입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유아 개인 차원의 사회적 수용 및 친구 수를, 학급 차원의 변인으로는 학급 수준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설정하고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 대하여 학급별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 모형 분석에서 각 수준의 변인들을 투입하지 않은 모델을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의 64.63%는 유아 개인차에 의해 결정되고, 35.37%는 학급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유아가 어느 학급에 속해있는가에 의해 또래 괴롭힘 피해가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 개인차의 변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으나 학급 간의 차이도 비교적 높은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차원의 행동특성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 학급의 맥락을 함께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둘째, 연구문제 2에 대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에서 먼저 유아의 사회적 수용 정도는 또래 괴롭힘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의 정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또래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유아들의 경우 하루 일과 중 다른 유아들에게 놀이에 빈번하게 초대되어 또래들과 놀이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으므로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응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Hodges et al., 1997). 반면에 사회적 수용이 낮은 경우 피해 유아를 방어하거나 보호해주는 또래가 없으므로, 괴롭힘이 묵인되거나 방조되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수용도는 유아가 대인 관계에서 보이는 공격성, 위축성 및 친사회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공격성과 위축성의 정도가 낮고 친사회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도가 높았다(Coplan et al., 2004; Egan & Perry, 1998). 이에 기초해 볼 때, 또래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유아들은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이 괴롭힘의 피해를 보호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유아 개인 변인으로 친구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아의 친구 수는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성이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이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유아기의 친구관계가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보호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령기가 되면 사회적 관계의 30% 이상이 또래와의 관계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친구관계도 복잡성이 증가하고 밀접해지게 된다(Hanish et al., 2005). 이에 비하여 유아기의 친구관계는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므로 비교적 친구관계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발달에 따른 친구관계 개념의 변화를 보면 유아기 친구관계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함께 노는 놀이 상대의 역할을 한다(Newcomb & Bagwell, 1995). 학령기 이후가 되어야 친구관계를 통하여 아동들은 안정감, 지원받기 및 친밀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친구관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유아기 상호 지명된 친구 수가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Howes & Phillipsen, 1992; Ladd et al., 1996)에 기초하여 상호 지명된 친구의 수에 초점을 두었으나, 친구관계에서 친구 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친구의 행동특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구관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아들의 사회적 행동에서 유사성이다.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아동들은 행동특성, 태도 및 능력과 같은 측면에서 서로 유사했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친구 사이인 아동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친밀하게 지내면서 더욱 증가하게 된다(Haselager et al., 1998). 예를 들어, Snyder 등(1997)는 유아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공격성 정도가 높은 유아들 사이에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친구관계 경험이 유아들의 공격성 정도를 증가시키게 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해 유아가 친구관계를 맺고 있다면 친구 역시 피해 정도가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에 기초해 볼 때 친구가 보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 친구관계는 어린이집에서와 같이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유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며(Howes & Phil-

lipsen, 1992), 새로운 학급에서의 적응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Ladd et al., 1996) 것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도와주는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위험 상황에서 친구관계의 보호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친구 수뿐만 아니라,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와 친구관계 질(friendship quality)이 어떠하며, 친구의 행동 특성과 같은 다차원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급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먼저 학급 수준의 공격성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학급 수준의 공격성은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원적인 관계로 제한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학급 맥락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교사로부터 공격성에 대한 조절과 또래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내면화하게 되지만 공격성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유아기는 공격성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이다(underwood, 2003). 유아기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분노를 통제하며 감정이입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공격성은 감소하게 된다. 사회학습이론의 견해에서 보면 유아들은 또래들의 공격성에 주의하고 인지하는 관찰 학습 과정을 통하여 공격성을 습득하게 되고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공격성 정도가 높은 학급의 경우 이 학급에 속한 유아들은 또래 괴롭힘 가해 유아들이 보이는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빈번하게 관찰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동을 통하여 또래 괴롭힘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급의 공격성 정도가 높다는 것은 학급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에 대한 담임교사의 제한과 규칙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고 학급의 유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경우에 이를 통하여 피해 유아에 대하여 괴롭히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급 수준의 공격성과 함께 다른 변인으로 설정된 학급의 친사회성 수준 학급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친사회성 수준은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lam 등(1998)의 연구를 보면 학급에서 "Good Behavior Game"과 같이 협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보상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친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의해 학급 수준의 공격성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중재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초해볼 때,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학급 평균 친사회성 수준이 또래 괴롭힘의 정도를 낮추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Kellam et al.(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학급 차원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의도적으로 개입된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보고법을 사용하여 학급 유아들의 친사회성 정도를 측정하였으나, 이는 학급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분위기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교사 보고법 뿐만 아니라 관찰법을 사용한 다면적인 방법으로 학급의

사회정서적 분위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Howes (2000)의 연구에서는 또래놀이척도(Peer Play Scale)를 사용하여 유아들의 놀이 상호작용수준을 관찰하고, 교사가 보고한 교실 행동 척도(Classroom Behavior Inventory)와 교사-유아 관계(Student-Teacher Relationship)를 사용하고 이 세 가지 척도의 점수를 합산하여 유치원 학급의 사회적 분위기를 측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또래 괴롭힘 피해를 유아 개인 수준에서 관련된 변인들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각 유아들이 속한 모든 학급에 동일하게 일반화하는 경우 학급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간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교사가 학급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피해 유아의 개인 차원에서 개입뿐만 아니라 각 학급 구성원 행동특성의 집합적인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급 차원의 변인으로 학급 수준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설정하였으나, 이러한 변인들 이외에도 담임교사의 태도 역시 학급 차원의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Chang(2004)은 학급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차이는 교사가 어떤 접근을 취하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Roland와 Galloway(2002)도 학급교사의 태도가 집단 괴롭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교사들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무시하고 간과할 때 이것이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으로 전달되며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 차원과 학급 차원의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만을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두 차원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학급 차원 변인들의 중재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를 상호 지명한 친구 수만으로 계산하여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친구관계 질과 같은 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친구관계의 영향을 측정하는 추후연구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8(1), 153-165.
 양원경 · 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7.
 이점숙 · 유안진(1998).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1),

197-221.

- 최미경 ·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1), 85-106.
 Alsaker, F., & Valkanover, S. (2001). Early diagnosis and prevention of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175-195). N.Y.: Guilford Press.
 Battistich, M. V., Solomon, D., Kim, D., Warson, M., & Schaps, E. (1995). Schools as communities, poverty levels of student populations, and students' attitudes, motives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32(3), 627-658.
 Boivin, M., & Hymel, S. (1997). Peer experience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Chang, L. (2004). The role of classroom norms in contextualizing the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behaviors to peer accept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691-702.
 Coie, J., & Dodge, K.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ill-Palmer Quarterly*, 29(2), 261-281.
 Coplan, R. L., Par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Gest, S. D., Graham-Bermann, S. A., & Hartup, W. W. (2001). Peer experience: Common and unique features of number of friendships, social network centrality, and sociometric status. *Social Development*, 10(1), 23-40.
 Hanish, L. D., Ryan, P., Martin, C. L., & Fabes, R. A. (2005). The social context of young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4(1), 2-19.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Haselager, G. J. T., Hartup, W. H., Van Lieshout, C. F. M., & Riksen-Waleaven, J. M. A. (1998). Similarities between friends and nonfriends in middle child-

- hood. *Child Development*, 69(4), 1198-1208.
- Hodges, E. V. E., Boivin, M., Vit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i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32-1039.
- Howes, C. (2000). Social-emotional classroom climate in child care,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cond grade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9(2), 192-204.
- Howes, C., & Phillipsen, L. (1992). Gender and friendship: Relationships within peer groups of young children. *Social Development*, 7(3), 340-349.
- Kellam, S. G., Ling, X., Merisca, R., & Brown, C. D. H., & Ialongo, N. (1998). The effect of the level of aggression in the first grade classroom on the course and malleability aggressive behavior into middle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165-185.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3), 267-283.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d three to six: The short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69-377.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5).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2), 306-347.
- Parker, J. G., & Gottman, J. M. (1989).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in a relation context: Friendship interaction from early childhood adolescenc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8). Hillsdale, NJ: Earlbaum.
- Raudenbush, S. W., Bryk, A. S., Cheong, Y. F., & Congdon, R. T. (2004). *HLM 6: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Roland, E. & Gallaway, D. (2002). Classroom influences on bullying. *Educational Research*, 44(3), 299-312.
- Schwartz, D., Farver, J. M.,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1), 113-125
- Schwartz, D., McFadyen-Ketchum, S., Dodge, K. D., Petit, G. S., & Bates, J. E. (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87-99.
- Snyder, J., Horsch, E., & Childs, J. (1997). Peer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Affiliative sources and the shaping of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145-156.
- Underwood, M. (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Y: Guilford Press.

접수 일 : 2009년 09월 14일

심사 일 : 2009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18일